정치와평론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15 (2014.11), 91-116.*

Article

한국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에 대한 평가요소: 맹자의 부동심(不動心)과 권도론(權道論)을 중심으로

Evaluating the Political Campaign Rhetorics of Local Governors in Korea: Focusing on Mencius's 'Budongshim' and 'Kwondo'

이근용 _영산대학교

Lee, Keun Yong _Youngsan University

초록

이 연구는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를 선거공약 수사의 평가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탐색해 본 것이다. 맹자의 지언, 양기, 권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와 상통하면서 한국 정치 현실에 시사해 주는 면이 있고,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를 평가하는 요소 또는 기준으로 적용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 정의, 공평성, 공정성 같은 가치가 약화돼간다는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론의 시각을 정치 현장의 담론과 가치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정치 현실이나 정치인의 행태가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와 관련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세세한 툴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정치인의 실제 선거공약 수사를 평가한 사례를 풍부하게 축적해 갈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선거공약, 지방선거, 지역정치, 수사학, 맹자, 부동심, 권도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Mencius's 'Budongshim' and 'Kwondo' to evaluating the rhetorics of electoral promises of local government candidates. "Jian', 'Yanggi', and 'Kwondo' of Mencius seem to be equivalent to logos, ethos, and pathos of Aristotle, and worth to be applied as the elements or standards to evaluating the promises. Considering the situations that our contemporary society become worse in justice, fairness, and equal opportunity, to apply and draw the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of Mencius's 'Budongshim' and 'Kwondo' to political discourses and visions could make us to expect political

realities and politicians' behaviors to be better. We need to develop the tools and techniques evaluating the rhetorics of local candidate pledges in detail to apply those traditional values to modern politics. And further, we need to pile up the experiences and results we could obtain in researching and evaluating a lot of political cases on candidate rhetorics.

❑ **Key words**: electoral promise, local government election, local politics, rhetorics, Mencius, Budongshim, Kwondo

Ⅰ. 연구의 배경

올해 6·4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나 전문가들이 서로 '선방했다' '민심이 황금분할을 원했다' '야당이 패배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을 펴긴 했지만, 후보들의 선거공약 발표와 매니페스토 평가가 그런대로 차분히 진행된 선거로 보인다. 후보들이 유세,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회와 같은 직접 또는 간접의 여러 발표의 장에서 구두 또는 문서로 발표하는 선거공약은 유권자들로부터 크고 작은 주목을 받는다. 후보들은 선거공약을 통해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을 한다. 공약 하나하나를 공들여 개발하고 매력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지역정치인은 선거공약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고 유권자와 소통하기를 원한다. 유권자는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하는데 선거공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민은 공약의 내용이 얼마나 자신들의 요구와 소망을 담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을 살아봄 직하게 바꾸려고 하는지를 우선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 그 중에는 좀 더 눈길을 사로잡는 용어나 표현도 있을 것이고, 후보의 인간적 매력에 끌려 더 살펴보게 되는 공약들도 있을 것이다.

선거공약은 후보가 유권자에게 고도의 정치적 수사를 담아 전달하는 메시지다. 유권자는 공약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후보가 어떤 경력과 덕성을 가진 인물인지를 살피고, 후보가 얼마나 열정과 의지를 담아 감동적으로

공약을 전달하는지를 주시하며 그에 대한 지지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선거공약의 수사에도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의 삼요소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공약의 치밀함이나 타당성, 후보의 인성이나 능력, 유권자의 공감이나 감동이 각각 그에 해당한다.

정치적 수사가 담긴 선거공약의 발표, 그에 따른 유권자의 지지와 선택, 당선 후의 공약 이행과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정치 세계는 선순환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실제 현실은 그런 이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거공약은 선거용일 뿐이라거나, '공약'(空約)이 돼버렸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하겠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펼쳐지면서 좀 나아지긴 했다지만, 여전히 선거공약 이행률이 낮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을 수사적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이행률 역시 높다고 할 수 없으나, 공약의 이슈 제기나 순환 과정이 대부분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실상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다. 현대 정치가 거대 담론이나 거대 이슈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기보다는 생활 정치의 양상을 띠고, 국내외 지역 간의 제휴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지역 정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 후보들은 그리 지명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지역정치인은 공약을 개발해서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선거기간 중에 유권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과 중앙의 관계, 지역 간 협력, 글로벌 진출 및 제휴 같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지역민들의 일상생활 문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에는 거시와 미시, 전통과 현대, 글로벌과 지역의 관점과 가치들이 같이 존재한다.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에서 분석,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상, 표현, 구성, 전달, 기억이라는 수사의 일반 요소를 이용하거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의 수사학 개념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론의 관점에서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를 평가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공자가 인(仁)을 강조한 데 비해서 맹자는 인의(仁

義)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지역정치에 있어서의 화두는 지역의 균형 발전, 성장과 분배의 균형, 지역간 계층간 격차 해소 같이 공정, 공평,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 연구는 의(義)를 강조한 맹자의 사상이 현대 지역정치에 주는 함의가 있을 것으로 본 데서 출발했다. 특히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론은 수사의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정치인 또는 정치적 텍스트의 수사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의 실상을 짚어 본 후,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론의 관점으로 선거공약의 수사를 평가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한다.

Ⅱ. 정치적 텍스트 수사에 관한 기존 연구

국내 정치인의 공식적인 발표, 연설, 기자회견, 선거방송 토론 같은 정치적 텍스트에 대해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본 몇 가지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 글에서 시도한 연구의 의의나 연구문제를 논의해 본다.

송종길(2004)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주요후보(이회창, 노무현, 권영길)의 텔레비전 합동토론회를 베노이트(Benoit)와 웰스(Wells)의 수사학적 공격과 방어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 텔레비전 토론에서 후보자간 상호공격과 방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텔레비전 토론에 나타난 설득적 공격이슈와 전략이나 설득적 방어이슈와 전략은 무엇인지, 설득적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세 후보자의 토론 수행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송종길은 이를 통해, 텔레비전 토론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각 후보자의 토론 수행에서의 효율성과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한 후보자의 설득적 공격과 방어 전략만으로 평가할 수

1) 송종길, "2002년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타난 수사학적 토론전략 연구: 후보자의 설득적 공격과 방어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2004), 108-461.

없으며 궁극적으로 시청자나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기여할 수 있는 토론과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같이 포함돼야 함을 지적하였다.

정치인의 발언과 함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있다. 이수범(2005)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사안을 두고 입장을 달리한 여당과 야당이 결정사항 번복과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위기 기간을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2] 베노이트의 이미지 회복 전략틀을 이용하여 각 정당의 대변인 브리핑과 인터뷰 내용, 정치인 발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정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사안으로 인해 정당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는, 비난자 공격전략 위주가 아니라 정책 중심의 지지전략, 차별화 전략, 최소화 전략 등이 고루 쓰인다는 점,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신감 있는 정책 추진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미지 회복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위기 수사학에 관해서는 한국 대통령들의 변호전략을 분석한 이귀혜(2007)의 연구가 있다.[3] 이귀혜는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대통령들의 관습적 수사학과 각 대통령의 수사적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노태우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에 이르는 총 73개의 연설문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베노이트의 변호전략 유형과 고프만(Goffman)의 인상관리 이론을 결합한 분석틀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거부전략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사실 및 행위를 부인하는 거부전략이나 공격자를 공격하는 전략, 희생양 만들기 같은 책임회피 전략은 잘 쓰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 평가를 중립화할 수 있는 입지강화, 차별화, 초월 등의 정당화 전략을 사용함을 보여 주었다.

이귀혜·강남준·이종영(2008)은 탄핵 위기 전후로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기능어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수사적 스타일 및 심리상태를 읽어내고자 시도했다.[4] 이들은 분석을 위해 전통적 수사학의 내용어 중심 연구와 차별

2) 이수범, "행정수도 이전정책에 대한 정당 위기관리의 수사학적 분석," 『현상과 인식』 29권 4호(2005), 88-113.

3) 이귀혜, "한국 대통령들의 위기 수사학에 관한 연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전략 분석," 『한국언론학보』 551권 6호(2007), 62-90.

화되는 것으로 언어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치수사학의 기능어를 분석한 펜네베이커(Pennebaker)의 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 분석기법을 차용했다. 분석 결과,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적인 한국어 말뭉치의 평균과 비교할 때 더 많은 1인칭 대명사 주어를 사용했고 1인칭 복수대명사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했으며, 이것의 일차적 의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기 중심성'의 수사스타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해석의 여지도 남겨두고, 현재 한국어 자연어 처리기술이 형태소 분석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서 좀 더 심층적인 화자의 심리상태 분석을 실시하는 수준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밖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지는 고대 수사학 이론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취임연설을 분석한 임순미(2009)의 연구가 있다.[5] 임순미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레토릭을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의 개인적 가치프레임과 시대적 배경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레토릭의 다양한 은유를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이 정치적 상징이미지들을 어떻게 조작하여 대국민 설득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장르비평을 기본으로, 역할비평을 보조적 기제로 사용하여 두 대통령 취임사를 비교했다.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은 수행적, 정서적·도덕적 행동의 영역, 공동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에 두드러진 면을 보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수행적 행동과 행위적 행동을 부각시키는 자아 관련 수사, 자신감의 표출과 함께 자신을 이끄는 리더로 규정하는 수사에 더 두드러짐을 보였다.

이철한(2013)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사용된 정치담론을 베노이트의 정치담론의 기능적 분석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6] 분석은 KBS, MBC, SBS에서 주최한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 내용을,

---

4) 이귀혜·강남준·이종영, "탄핵시기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학 연구: 컴퓨터 언어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2008), 25-55.

5) 임순미, "정치리더의 가치 프레임: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비교," 『구가정책연구』 23권 4호(2009), 35-66.

6) 이철한, "정치담론의 기능적 분석연구: 2011년 서울시장 선거 텔레비전 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30호(2013), 159-185.

과거행위, 미래계획, 일반목표를 다루는 정책과 개인자질, 리더십, 이상을 다루는 인물 소재로 나누어 각각을 칭찬, 공격, 방어의 메시지 기능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정치담론 사용에 있어서는 칭찬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 다음은 공격, 방어의 순으로 사용되며, 정치담론의 소재에 있어서는 정책이 인물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됨을 보여 주었다. 이철한은 텔레비전토론 이외에 정치광고나 찬조연설을 포함하고, 의제의 내용과 레토릭의 개별 스타일을 포함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기존 수사학적 연구들을 보면, 레토릭의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나 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거공약이 전달되는 어느 한 국면, 예컨대 선거방송토론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선거공약 내용뿐만 아니라 후보자 인물이나 능력, 매력이나 의지 같은 것을 동시에 보고 판단한다. 이 연구는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관련 활동 과정을 수사나 레토릭이라는 관점에서 다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데 어떤 요소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선거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지역정치인을 선택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Ⅲ. 지역 정치인의 선거공약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맞추어 구체성을 띤다. 지역정치인은 지역과 중앙, 지역과 지역 간의 문제를 아울러 풀어가야 한다.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역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 제휴를 맺어가는 글로벌 시대에는 지역정치인의 더 큰 안목과 능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모든 지역은 지역개발을 통해 세수를 증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또한 주민들도 지역개발을 통한 소득 증대를 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개발의제는 정치인들에게 승리의 상징처럼 인식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정당의 이념적 가치를 초월해 지역개발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7]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지역개발의제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다.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요구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제대로 집행되거나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기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지방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은 이제 국가나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경제, 사회, 행정적 단위로서 기능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소신은 매우 중요하며 선거 시 제시된 선거공약의 이행은 자신의 재신임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공약 이행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8]

지역정치인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득표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선거공약을 개발하고 공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며,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지역정치인의 입장에서 공약은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라는 현실적인 도전 하에 지역개발 공약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지만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주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아 비가시성이 높은 경우는 선거공약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만약 공약이 주민 간 갈등이나 반목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 경우 후보들로서는 회피하고 싶은 이슈가 된다. 이를 극복할 거래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9]

---

7) 정주용, "지역개발의제 선거공약과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2011), 347.

8) 신천식·이주형,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권 7호(2011), 388.

선거공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후보자와 유권자이다. 후보자가 정강도 참고하고 지역민의 요구도 반영하고 하지만, 결국 최종 공약화하여 발표하는 것은 후보자 자신이다. 유권자는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통로와 수단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을 접하고 판단하여 최종 선택을 한다. 선거공약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은 크게 문자매체와 방송영상물이다. 문자매체에는 선거공약 책자와 공보, 신문기사, 인터넷게시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방송영상물에는 선거방송토론, 방송연설, 방송광고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어떻게 개발, 표현, 전달하는가 하는 수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므로, 공약이 당선 후에 얼마나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현되는가는 논외로 한다. 단지, 현재까지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의 현황을 짚어보고, 수사적으로는 어떤 평가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지난 3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당학회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K-manifesto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여 선거공약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김미경(2014)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에 무관심한 이유를 정치, 문화, 사회, 기술적 측면으로 제시한다.[10] 정치적으로는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등의 규격과 게재 내용에 대한 제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제도권의 정책선거 운동이나 정치권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전개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든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언론의 노력, 특히 TV토론의 활성화 부족, SMART평가 같은 전문가집단의 공약평가에 유권자 참여 부족 등을 지적한다. 기술적으로는 유권자에게 공약분석이 필요한가 또는 유권자가 공약분석을 하기가 용이한가와 관련된 문제인데, 유권자의 지지후보 선택 고려요인에서 아직 인물/능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유권자 중심의 공약

9) 정문기·오수길, "지역개발의제 채택의 상징정치: 민선4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권 2호(2008), 222.

10) 김미경, "유권자는 왜 후보자의 공약에 무관심한가?" 「제6회 지방선거에서 K-Manifesto 활성화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정당학회 · 한국정책학회 공동 주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토론회, 2014. 3. 11.

분석틀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윤광일(2014)은 후보자가 부실한 공약을 내놓는 이유를 제도, 정당, 후보자, 유권자 등의 네 차원에서 분석한다.[11] 제도적 요인으로는 재정분권 미확립과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 동시선거제도, 기초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등을 든다. 정당 요인으로는 지방선거 공천방식과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미흡을 지적한다. 그리고, 후보자 요인으로는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와 후보자 자질문제를, 유권자 요인으로는 정책선거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투표율, 정당과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들고 있다.

윤광일은 '유권자의 정당 및 지역주의적 투표행테는 선거공약의 중요성을 약화시켜 선거기간에 직면하여 급조된, 부실한 공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한다.[12] 민주화 이후 실시된 한국의 각급 선거에서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지역 외에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유권자들이 인물과 능력,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후보자 선택요인으로 응답하고 있지만(<표 1>),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편향을 반영하고 있거나, 자기 출신 지역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인물/능력이나 정책/공약이 자신 또는 지역에 이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표 1> 선거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

(단위: %)

선거명 / 결정요인	2006 4회 지방선거	2007 17대 대선	2008 18대 국선	2010 5회 지방선거	2012 19대 국선	2012 18대 대선
인물/능력	36.1	41.6	34.2	33.3	30.8	28.8
정책/공약	23.7	33.7	30.8	29.3	34.0	44.6
조사 시기	2006.5.8. ~9 (선거전)	2007.11.18. ~19 (선거전)	2008.3.15. ~16 (선거전)	2010.5.10. ~11 (선거전)	2012.3.19. ~20 (선거전)	2012.11.16. ~17 (선거전)
인물/능력	35.2	37.8	28.0	30.0	24.8	26.4

11) 윤광일, "후보자는 왜 부실한 공약을 내놓는가?"「제6회 지방선거에서 K-Manifesto 활성화 방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정당학회 · 한국정책학회 공동 주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토론회, 2014. 3. 11.

12) 윤광일, "후보자는 왜 부실한 공약을 내놓는가?" 115쪽.

선거명 / 결정요인	2006 4회 지방선거	2007 17대 대선	2008 18대 국선	2010 5회 지방선거	2012 19대 국선	2012 18대 대선
정책/공약	11.5	38.8	30.9	32.8	38.1	48.7
조사 시기	2006.5.21. ~22 (선거전)	2007.12.9. (1일간 선거전)	2008.4.3. ~4 (선거전)	2010.5.24. ~25 (선거전)	2012.4.1. ~3 (선거전)	2012.12.6. ~7 (선거전)
인물/능력	31.6	39.2	33.5	35.2	34.6	45.5
정책/공약	18.0	27.1	14.6	18.1	16.1	27.4
조사 시기	2006.7.3. ~4 (선거후)	2007.12.20. ~1.7 (선거후)	2008.4.10. ~29 (선거후)	2010.6.3. ~24 (선거후)	2012.4.12. ~21 (선거후)	2012.12.20. ~1.9 (선거후)

출처: 전국 유권자의식 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13]

위 발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선거공약을 둘러싼 논의와 현장의 실정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첫째, 2006년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이 펼쳐지면서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은 공약보다는 인물이나 능력,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SMART-PLUS와 같은 공약 평가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긴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실제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해져서 투표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셋째, 후보들도 공약을 꼭 이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한데, 이렇게 된 데는 공약 이행을 추적 감시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Ⅳ. 선거공약 수사에 대한 평가 요소

선거공약의 선순환적인 작동이 대의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주요 고리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후보자도 부실한 공약을 내놓지 않아야 하고, 유권자도 공약을 제대로 평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행태가 뫼비우스 띠처럼 얽혀 있는

13) 윤광일, "후보자는 왜 부실한 공약을 내놓는가?" 116쪽 재인.

상황을 끝내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하나 착안해 볼 수 있는 것이, 선거공약을 그 자체 내용으로만 보지 말고, 선거공약의 착상, 표현, 구성, 전달, 기억의 과정을 총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고전적인 수사학적 관점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과 통한다. 더 줄여서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의 수사학적 요소를 다시 끌어올 필요성을 상고해 보자는 것이다.

지역정치인이 선거공약을 개발해서 제시하고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 정치인이 시민들을 설득시켜서 호응을 얻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준웅(2011)은 고대 소피스트들이 서로의 주장을 제기해서 경쟁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현대 민주정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숙의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의사소통 민주주의'를 제기한다.[14] 레토릭이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공동체의 합의를 끌어내고 미래 운명을 같이 하는 실천을 동원하는 데, 무력, 선전선동, 광기 같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모두가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전 수사학을 다시 상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돼 있고 초기 수사학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수사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티모시 보셔스의 개념 설명을 일부 소개하고 논의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그는 수사학의 5가지 규범으로 발상, 배열, 표현, 발표 기억을 든다.[15] 보셔스의 설명에 따르면, 발상은 관련 쟁점을 정의하고, 연설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만들고,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것이다. 배열은 수사학의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 보통 도입부, 주장, 증거, 결론으로 구성된다. 표현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연설의 기술적 부분을 말한다. 발표는 연설자가 실연할 때의 언어적 비언어적 특징들을 말한다. 기억은 실연을 할 때 연설내용을 회상하는 것과 연설에 사용된 정보의 회상을 말한다.

---

14) 이준웅, 『말과 권력』(파주: 한길사, 2011).

15) Borchers, Timothy A. *Rhetorical Theory: An Introduction*. 이희복 외 역, 『수사학 이론』(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60.

보셔스는 수사학의 세 요소인 에고스, 파토스, 로고스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며 그 요지를 정리해 준다. 보셔스의 설명에 따르면, 청중은 제시된 주장에 대해서 뿐 아니라 화자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때문에 에토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실천적 지혜(프로네시스), 덕(아레테), 그리고 좋은 뜻(유노이아)이라는 세 가지 속성이 필요하다.[16] 화자는 파토스나 정서적 소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자신의 청중에 대해 알아야만 하고, 청중 구성원의 정서와 관련하여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정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이유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보셔스는 또 기술적 논증인 로고스 또는 증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수사학을 사용할 때 삼단논법을 철저히 따지며 말하지는 않는 대신,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청중의 인식에 근거를 둔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을 지적한다.[17]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고전적 수사학의 규범이나 요소를 적용해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론의 적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인의를 강조한 맹자는 제후들에게 패도정치가 아닌 왕도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다녔다. 때로는 비유를 들어 때로는 정곡을 찌르며, 제후, 제자, 사상가에게 정치의 바른 길, 군자의 길을 설파하고 설득했다. 먼저,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론의 요체를 알아본 후, 이것이 어떻게 수사학과 연결되고 선거공약의 수사를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1. 맹자의 부동심[18]

맹자 부동심은 맹자 제자인 공손추가 "선생께서 지위를 얻어 도를 행하게 된다면 패자와 왕자의 업을 이루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와 같이 <막중한

16) Borchers, *Rhetorical Theory: An Introduction,* 64.
17) Borchers, *Rhetorical Theory: An Introduction,* 66.
18) 이하 맹자의 부동심에 관한 내용은, 이근용, "맹자의 부동심과 한국 언론의 보도관행," 『동양고전연구』 제23집(2005), 289~312. 2절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책임과 의무를 띠게> 되더라도 마음이 동요되시지 않겠냐?"고 묻자, 그에 대해 맹자가 "나는 40세에 마음을 동요하지 않았노라"하며 답변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19] 마음의 동요가 없음을 뜻하는 맹자의 부동심은 수양, 심성, 실천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동심을 이루는 방법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를 평가하는 데도 일정한 시사를 줄 것으로 본다.

맹자는 부동심을 이루는 방법이 있냐는 공손추의 질문에 자신이 장점을 가진 것으로 지언(知言)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제시한다. 맹자는 지언에 대해 "편벽된 말에 그 가리운 바를 알며, 방탕한 말에 빠져 있는 바를 알며, 부정한 말에 괴리된 바를 알며, 도피하는 말에 <논리가> 궁함을 알 수 있으니, <말의 병통은> 마음에서 생겨나 정사에 해를 끼치며, 정사에 발로되어 일에 해를 끼친다."고 말한다.[20]

맹자가 그릇된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말로서 제시한 네 가지 종류의 말들에 대해 조성기(1999)는 좀 더 풀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1]

첫째로 피사(詖辭)는 한 쪽으로 치우쳐 전체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언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극우니 극좌니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아무리 자신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피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맹자는 이러한 피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막혀 있는 점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다.

둘째로 음사(淫辭)는 방탕하고 궤도를 벗어난 말로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언사이다. 겉으로 볼 때 호탕하고 자유분방하여 정신에 자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무언가 감추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이다. 맹자는 바로 이 점을, 음사를 꿰뚫어 분별할 수 있었다.

셋째로 사사(邪辭)는 간교하게 속이는 말로 이단사설에 빠져있는 말이다. 한 쪽 면을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혀 잘못된 관점에서 말하기

---

19) 『孟子』「公孫丑 上」公孫丑問曰 夫子加齊之卿相 得行道焉 雖由此霸王 不異矣 如此則動心否乎 孟子曰 否我四十不動心

20) 『孟子』「公孫丑 上」何謂知言 曰詖辭 知其所蔽 淫辭 知其所陷 邪辭 知其所離 遁辭 知其所窮 生於其心 害於其政 發於其政 害於其事 ....

21) 조성기, 『맹자가 살아있다면』(서울: 동아일보사, 1999), 27-28.

때문에 모두 엉터리인데도 교묘하게 논리를 갖추고 있는 언사이다. 그러나 맹자는 이런 사사를 통하여 속이려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넷째로 둔사(遁辭)는 스스로 이론이 궁색함을 알고 핵심을 피해가는 언사이다. 맹자는 이런 둔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학문의 깊이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챌 수 있었다.

맹자는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그 기(氣)됨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함으로써 잘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이 호연지기가 천지의 사이에 꽉 차게 된다. 그 기됨이 의(義)와 도(道)에 배합되니, 이것이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 이 호연지기는 의리(義理)를 많이 축적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습하여 취해지는 것은 아니니, 행하고서 마음에 부족하게 여기는 바가 있으면 호연지기가 굶주리게 된다."라고 설명한다.[22]

조성기(1999)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한다. 우선 기(氣)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굳센 것으로 바르게 길러서 손상을 입지 않게 한다면 천지간에 가득 찰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그 기는 도를 따라서 의와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기가 허탈해지고 만다. 다시 말하면 기라는 것은 내면의 의를 모아서 길러지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의가 갑자기 들어와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동하는 가운데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는 자꾸만 빠져 나가고 만다. 그러므로 사람이 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가 갑자기 길러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잊지 말고 늘 품고 있으면서 빨리 기르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23]

김기주(1999)는 이러한 지언과 양기(養氣)를 부동심을 완성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즉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으로 본다(162쪽).[24] 지언은 좁게는 타인의 언사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고, 넓게는 객관세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가리켜 결

22) 『孟子』「公孫丑 上」敢問何爲浩然之氣 曰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則餒矣 ....
23) 조성기, 『맹자가 살아있다면』 26.
24) 김기주, "人性과 自我實現: 孟子哲學을 중심으로," 『哲學硏究』 제72집(1999), 153-169.

국 부동심을 완성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이 되며, 양기는 반성적 사고 혹은 사(思)와 같은 것이 되어 결국 부동심을 완성하기 위한 주관적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의 충족에 의해 완성되는 부동심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맹자에게 있어서 부동심은 단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주동적 주체적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본다면 맹자가 이야기하는 부동심은 단지 마음의 동요가 없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 데 흔들림이 없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언이며 양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맹자는 양기를 하는 데 있어서 뜻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맹자는 "무릇 뜻(志)은 기의 장수이며, 기는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니 뜻이 최고이며 기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뜻을 잡고 그 기를 포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공손추가 "이미 뜻이 최고이며 기가 그 다음이라 하고, 또 그 뜻을 잡고 그 기를 포악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맹자는 "뜻이 한결같으면 기를 움직이고 기가 한결같으면 뜻을 움직이니, 지금 넘어지는 사람과 달리는 사람은 기가 도리어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고 답한다.[25]

결국 맹자는 사람이 뜻을 공경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되, 기를 기르는 일도 역시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안과 밖, 근본과 말단이 서로 배양하는 것이다. '뜻이 향하는 바가 한결같으면 기는 그 뜻을 따르지만, 기 역시 한결같으면 뜻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박재주, 2002, 246쪽). 맹자는 이러한 기됨은 의(義)와 도(道)에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주리게 된다고 하였다. 주린다는 것은 기가 충만하지 못함을 가리킨 말이다. 결국 의를 쌓는 것이 기를 기르는 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자의 주석을 보아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주자는 "기가 비록 도의에 짝하나, 기를 기르는 처음에는 일마다 모두 의에 합하는지 스스로 반성하여 항상 정직한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

25) 『孟子』「公孫丑 上」 旣曰 志至焉 氣次焉 又曰 持其志 無暴其氣者 何也 曰志壹 則動氣 氣壹則動志也 今夫 蹶者趨者 是氣也而反動其心

서 마음에 부끄러운 점이 없어서 이 기가 저절로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우연하게 의에 합치되는 한 가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문득 밖에서 엄습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동이 한 번이라도 의에 합하지 못해서 스스로 돌이켜보아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그 몸에 충만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가 어찌 밖에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다.[26]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자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따르면, 호연은 '마음이 넓고 큰 모양'을 이르는 것이며, 호연지기는 '공명정대하여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 용기'이다. 이 도덕적 용기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는 인간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노래한 맹자의 삼락장(三樂章)에 잘 나타나 있다.[27] 이계학(2001)은 맹자의 부동심이 '인격의 확립을 가늠하는 징표'이며, 집의(集義)를 통해 호연지기를 키워 나가는 방법은 비록 점진적인 방법일지라도, 부동심을 확립한 상태는 질적인 전환 과정을 통해 확고부동한 인격을 확립한 상태로 해석한다.[28]

송봉구(2001)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358쪽).[29] 즉, ① 반드시 호연지기를 기름에 종사하고(必有事) ②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고(勿正) ③ 마음에 잊지도 말며(心勿忘) ④ 억지로 조장하지도 말라(勿助長)가 그것으로, 그 근거로서 맹자가 제시한 송(宋) 나라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다. 조장이라는 말이 유래한 맹자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송나라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송나라 사람 중에 벼싹이 자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뽑아놓은 자가 있었다. 그는 아무 것도 모르고 돌아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나는 매우 피곤하다. 내가 벼싹이 자라도록 도왔다.' 하자 그 아들이 달려가서 보았더니 벼싹은 말라 있었다. 천하

---

26) 『孟子』「公孫丑 上」註 .... 氣雖可以配乎道義 而其養之之始 乃由事皆合義 自反常直 是以無所愧怍 而此氣自然發生於中 非由只行一事偶合於義 便可掩襲於外而得之也 慊快也足也 言所行一有不合於義而自反不直 則不足於心 而其體有所不充矣 然則義豈在外哉 告子不知此理 ...

27) 『孟子』「盡心 上」孟子曰 君子有三樂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28) 이계학, "선진 유가 교학 사상의 초월적 지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인격확립의 초월성』(서울: 청계. 2001), 135.

29) 송봉구, "孟子의 不動心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14집(2001), 341-364.

에 벼싹이 자라도록 억지로 조장하지 않는 자가 적으니, 유익함이 없다 해서 버려두는 자는 비유하면 벼싹을 김매지 않는 자요, 억지로 조장(助長)하는 자는 벼싹을 뽑아놓는 자이니, 이는 비단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치는 것이다."[30] 송봉구는 이 네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묶어서 설명한다. 즉, 의미상으로 구분하여 필유사(必有事)와 심물망(心勿忘)을 하나로 묶고 물정(勿正)과 물조장(勿助長)을 하나로 묶는다. 필유사(必有事)와 심물망(心勿忘)은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에 항상 신경을 쓰고 마음으로 이 일을 잊지도 말라는 것이다. 물정(勿正)과 물조장(勿助長)은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고 또 조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창호(2001)는 맹자의 부동심을 수양과 실천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인간이 마음을 보존하여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이르는 데 이루어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즉, 맹자는 '인(仁)-예(禮)-의(義)'라는 관계를 일체로 보고 이를 체득하여 실천하는 인간형을 요망했으며, 이때 인간은 한 터럭의 사사로운 마음도 없어야 인에 거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바른 자리와 큰 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선의 실천을 넘어 백성과 더불어 한다는 사회적 선의 실천으로 나아감을 뜻하며, 대인의 경지와 통한다. 이때 부귀(富貴)와 빈천(貧賤)과 위무(威武)가 나의 선함을 꺾지 못할 정도로 수양을 해야 진정한 대장부이며, 이것은 부동심에 이른 인간에게서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신창호는 맹자의 수양론을 마음의 확이충지(擴而充之)라는 기본틀 안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행위의 근원으로 자리한다고 보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인간의 마음은 착할 가능성을 지닌다(善端, 性善, 心善). 둘째, 마음을 잘 보존하여 끊임없이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擴而充之). 셋째, 그 주요 방법이 기의 함양과 축적, 지속적 보존이다(浩然之氣, 不動心). 넷째, 이를 체득한 인간이 大丈夫이다. 다섯째, 대장부는 개인적·사회적 덕의 실천을 통해 건전한 세상을 도모한다.[31]

결국, 맹자의 부동심은 단박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30) 『孟子』「公孫丑 上」... 無若宋人然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謂其人曰 今日病矣, 予助苗長矣.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天下之不助苗長者寡矣. 以爲無益而舍之者, 不耘苗者也 助之長者, 揠苗者也. 非徒無益, 而又害之

31) 신창호, "맹자의 마음 수양론과 교육적 인간상 고찰," 『동양고전연구』 제14집(2001), 339-340.

의로운 삶의 과정, 확고한 신조와 지사(志士)의 기개를 보존했을 때 얻어지는 마음의 상태이다. 또한, 부동심은 개인적인 평정과 안락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 세상의 구현을 지향하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맹자의 권도(權道)론

맹자의 권도론이 맹자 사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수사와 관련해서 주는 함의는 크다고 보는 것이 여기서 취하는 관점이다. 저울 권(權)자가 의미하듯이 사안의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권도라면,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정치와도 가깝다. 지역정치인이 선거공약을 통해 지역 유권자를 설득할 때, 가장 요긴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도 권도라 할 수 있다. 맹자는 물에 빠진 형수를 구하는 것이 남녀 간에 직접 손을 잡지 않는다는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순우곤의 질문에 답하면서 권도를 언급한다.

『맹자』「이루상」 편 17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 "순우곤이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친히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하고 묻자, 맹자께서 '예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형수가 우물에 빠지면 손으로써 구원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자, 대답하시기를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승냥이이니,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친히 하지 않음은 예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으면 손으로써 구원함은 권도이다' 하셨다."[32]

백종석(2008)은 권도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시도했다.[33] 그가 보기에, 맹자에게서 '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중을 재며, 형세의 변화에 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맹자는 구체적인 운영상에서, 권을 일반적인 상황을 어기는 급박한 행위 혹은 조치로 보았다는 것이다. 유가가 보기에 도덕원칙과 행위규범에는 근본적이면서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經)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러

32) 『孟子』「離婁 上」淳于髡曰 男女授受不親禮與 孟子曰 禮也 曰嫂溺則援之以手乎 曰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禮也 嫂溺援之以手者權也

33) 백종석, "맹자철학에서 권도의 철학적 해석," 『철학논집』 16집(2008), 93-113.

나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 상황은 또한 갖가지로 변화하면서 얼키설키 얽혀 있는데, 이렇게 확정된 도덕원칙과 규범은 일체 사물에 대해서 모두 명확한 규정을 두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 하에서, 유가의 경과 권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바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한 권변에 통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은 변화의 개념이고 항상 사물의 특수한 상황을 표현하는 데 비해, 경은 보편성을 대변한다(99쪽).

박재주(2007)는 '권'과 '시중'(時中)을 비교 설명하면서, 두 개념은 미묘한 차이점도 있지만, 임기응변의 측면에서 말하면 서로 통한다고 본다. '시중은 서로 다른 사물이나 서로 다른 때에서 서로 다른 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권은 모든 사물들이 중에 합하는 지를 저울질하여 판단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다'(209쪽). 남녀가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변함없는 예'이지만, 물에 빠진 형수에게 손을 내밀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예를 어기지만 도리어 상황에서의 합당성, 즉 중을 얻는 길이다. 서로 다른 일에는 서로 다른 중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얻는 것은 '권'(저울질)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34]

이러한 맹자 권도론이 갖는 덕 윤리학적 의미를 결과주의 윤리학이나 의무론과 비교한 정용환(2012)의 연구도 있다. 정용환의 논의에 따르면, 권도를 행해야만 하는 경우는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권도를 행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나 의무들 사이에 모순적인 딜레마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도를 행하고 나면 후회나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이 동반되기 쉽다. 정용환은 어떤 가치의 희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맹자의 권도는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정당성을 얻는다고 본다. 첫째, 좋은 동기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여러 동기들 중에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비중이 큰 좋은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야 한다. 셋째, 부정적 결과는 우선적인 좋은 동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35]

---

34) 박재주, 『동양의 도덕 교육사상』 (서울: 청계, 2002), 211.
35) 정용환, "맹자 권도론의 덕 윤리학적 함축," 『동양철학연구』 제72집(2012), 66-67.

맹자가 살던 시대에 비해서 현대는 더욱 복잡해지고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으니, 권도를 적용할 여지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나 기업을 운영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중을 따지는 일만큼 큰일도 드물다. 작게는 자체 제작할 것이냐 외주 제작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크게는 성장 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 하는 문제에 아르기까지 권도를 발휘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다. 지역정치인이 선거공약을 개발, 표현, 배열하는 데도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기준이다.

3. 선거공약 수사의 평가에 적용 가능성

맹자의 부동심은 지언과 양기(養氣)를 통해 얻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지언은 한 마디로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피사(치우친 말), 음사(허황된 말), 사사(삿된 말), 둔사(궁색한 말)를 분별할 줄 안다면, 적어도 말에 속아 넘어가고 현혹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역시 말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언의 요소들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먼저, 피사는 선거공약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예를 들면 사회의 어느 한 계층 즉 부유층에 유리한 내용은 아닌지, 어느 한 지역에 유리한 내용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사는 선거공약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은 아닌지, 예를 들면 수십만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처럼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거나 헛된 꿈을 꾸게 하는 내용은 아닌지를 걸러보는 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사는 선거공약이 어느 한 면을 못 보게 가려서 속이는 말은 아닌지, 예를 들면 원전이나 밀양송전탑 건설, 4대강 사업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거나 환경 폐해는 언급을 안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내용은 아닌지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둔사는 선거공약이 핵심을 비켜가거나 논리가 빈약한 내용은 아닌지, 예를 들면 지역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은 아닌지를 분간하고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맹자의 지언은 고전 수사학으로 보면 로고스에 해당된다. 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 보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맹자의 지언과 로고스는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에 비해 맹자의 양호연지기(養浩然之氣) 즉 양기는 화자의 덕성 요소인 에토스와 통하는 면이 있다. 지역정치인이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꾸준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호연지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기른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의 전달은 공약집이나 책자로도 이루어지지만, 직접적인 유세와 방송토론, 방송연설로도 이루어진다. 유권자들이 지역정치인의 인물이나 능력을 여전히 중요한 선택의 요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자의 요소인 에토스 즉 후보의 살아온 길이나 이력, 인품과 덕성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돼야 한다.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 왔는지에 따라 후보가 풍기는 분위기 즉 덕망이나 기백은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특히 후보가 선거공약을 방송이나 실제 유세에서 전달할 때 더 드러난다. 후보가 얼마나 호연지기를 쌓는 삶을 살아 왔는가는 말하는 내용보다는 그의 몸짓이나 표정, 어투에서 더 드러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맹자의 권도는 고전수사학에서 청자의 요소인 파토스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지역정치인이 선거공약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호응과 지지를 얻어내는가 하는 것이 모두 권도와 관련이 있다. 선거공약의 청자인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선거공약에 담아내고, 선거공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필코 구현해내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보이는 것들이 모두 파토스 또는 권도와 관련 있는 요소가 된다. 지역정치인은 선거공약을 개발, 표현, 전달, 배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호감이 가는 인물이 돼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맹자의 지언, 양기, 권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와 상통하면서 한국 정치 현실에 시사해 주는 면이 있고,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를 평가하는 요소 또는 기준으로 적용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 정의, 공평성, 공정성 같은 가치가 약화돼간다는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론의 시각을 정치 현장의 담론과 가치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정치 현실이나 정치인의 행태가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요약 및 제언

지금까지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에 대해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를 평가요소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았다. 맹자 사상을 정치 현장에 적용해 보는 의의는, 그동안 축적돼 있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이론과 현실의 접목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동양문화 또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정치적 도구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데도 있다. 2006년 매니페스토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도 '한국적'이라는 수사를 붙여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맹자 사상의 적용을 시도한 이 연구가 그런 논의에 어떤 계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연구는 맹자의 부동심과 권도를 선거공약 수사의 평가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탐색해 본 것이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수사와 관련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세세한 툴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정치인의 실제 선거공약 수사를 평가한 사례를 풍부하게 축적해 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공약의 개발 배경 및 동기, 공약의 표현 및 배열과 같은 공약의 내용적 수사, 후보의 살아온 과정, 공적인 활동 및 성과와 같은 후보의 인물 수사, 공약의 전달 과정에서 보이는 후보의 열정이나 의지, 지역민들과의 교감 같은 지역민 관련 수사 같은 것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지역정치인들이 발표한 선거공약을 수사학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가와 선거 결과, 공약의 이행 정도를

추적 평가하는 작업은 후속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앞으로, 선거공약의 내용 평가에 치중해 왔던 과거와 달리,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 관련 활동을 수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공약, 인물, 지역민 반응을 폭넓게 평가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Submitted : 2014. Oct. 07.
▸ Reviewed : 2014. Oct. 30.
▸ Accepted : 2014. Nov. 06.

References

Mencius

Baek, Jong Seok. 2008. "Maengjacheolhakeseo Kwondoui Chulhakjeok Haeseok." *Chulhaknonjib* 16, 93-113.

Bak, Jae Ju. 2002. *Dongyangui Doduk Gyoyusasang.* Seoul: Cheonggye.

_____. 2007. "Sanghwangyulliroseoui Yugaui Jungyongyunlli." Dongseocheolhak-yeongu 43, 195-224.

Borchers, Timothy A. *Rhetorical Theory: An Introduction*. trans. Lee, Hui Bok. et al. 2009. *Susahak Iron*. Seoul: Communicationbooks.

Kim, Gi Ju. 1999. "Insunggwa Ja-asilhyun: Maengjacheolhakeul Jungsimeuro." *Cheolhakyeongu* 72, 153-169.

Kim, Mi Kyung. 2014. "Yugwonjaneun Wae Hubojaui Gongyage Mugwansimhanga?" *Je 6hoi Jibangseongeoeseo K-Manifesto Hwalseonghwa Bangan,* Jungangseongeog-walliwiwonhoi · Hangukjeongdanghakhoi · Hangukjeongchaekhakhoi Gong-dong Juchoi, Je 6hoi Junguk Dongsi Jibangseongeoeseo Manifesto Jungangseongeo Toronhoi, 2014. 3. 11.

Jeong, Ju Yong. 2011. "Jiyeokgaebaluije Seongeogongyakgwa Jeonchakgaldeunge Gwanhan Yeongu: Gukjegwahakbusinessbelt Saryebunseokeul Jungsimeuro." *Hangukjeongchihakhoibo* 20(4), 339-370.

Jo, Seong Gi. 1999. *Maengjaga Salaittamyun*. Seoul: Dongailbosa.

Jung, Mun Gi., O Su Gil. 2008. "Jiyeokgaebaluije Chaetakui Sangjingjungchi: Minseon-4gi Gwangyeokjachidanchejang Hubodeului Gongyak Bunseokeul Jung-simeuro." *Hangukhaenjunghakbo* 42(2), 217-232.

Jung, Yong Hwan. 2012. " Maengja Gwondoronui Deok Yullihakjeok Hamchuk." *Dongyangcheolhakyeongu* 72, 57-94.

Lee, Chul Han. 2013. "Jungchidamlonui Kineungjuk Bunseokyeongu: 2011nyeon Seoulsijang Seongeo Toron." *Jungchicommunication Yeongu* 30, 159-185.

Lee, Geun Yong. 2005. "Maenjaui Budongshimgwa Hanguk Eollonui Bodogwan-haeng." *Dongyanggojeonyeongu* 23, 289-312.

Lee, Jun Ung. 2011. *Malgwa Gwollyeok*. Paju: Hangillsa.

Lee, Gwi Hye. 2007. “Hanguk Daetongryeongduelui Wigi Susahake Gwanhan Yeongu: Notaewoo, Kimyeongsam, Kimdaejung, Nomuhyeon Daetongryeongui Byeonhojeollyak Bunseok.” *Hankukeollonhakbo 551(6), 62-90.*

Lee, Gwi Hye,. Kang, Nam Jun., Lee, Jong Young., 2008. “Tanhaeksigi Nomuhyeon Daetongryeongui Susahak Yeongu: Computer Eoneobunseok Kibeobeul Jungsimeuro.” *Hankukeollonhakbo* 52(5), 25-55.

Lee, Gye Hak. 2001. “Seonjin Yuga Gyohak Sasangui Chowoljeok Jipyeong.” Hangukjeongsinmunhwayeonguwon Pyeon. *Ingyeokhwangribui Chowolseong,* 115-144. Seoul: Cheonggye.

Lee, Su Beom. 2005. “Haenjungsudo Ijeonjeongchaeke Daehan Jungdang Wigigwalliui Susahakjeok Bunseok.” *Hyeonsangwa Insik* 29(4), 88-113.

Lim, Sun Mi. 2009. “Jeongchileaderui Gachi Frame:Kimdaejung Daetongryeongwa Leemyeongbak Daetongryeongui Chwiimsa Bigyo.” *Guga Jungchakyeongu* 23(4), 35-66.

Sin, Chang Ho. 2001. “Mangjaui Maeum Suyangrongwa Gyoyukjeok Ingansang Gochal.” *Dongyanggojeonyeogu* 14, 319-340.

Sin, Cheon Sik., Lee, Ju Hyeong. 2011. “Jachidanchejangui Seongeogongyaki Dosigonganguj o Byeohwae Michineun yeonghyange Gwanhan Yeongu.” *Hangukcontentshakhoinonmunji* 11(7), 387-405.

Song, Bong gu. 2001. “Maengjaui Budongsime Gwanhan Yeongu.” *Dongyanggojeonyeogu* 14, 341-364.

Song, Jong Gil. 2004. “2002nyeon Daetongryeonghubo Television Toroneseo Natanan Susahakjeok Toronjeollyak *Yeongu:* Hubojaui Seoldeukjeok Gonggweokgwa Bangeojeollyakeul Jungsimeuro.” *Hankukeollonhakbo* 48(2), 108-461.

Yun, Gwang il. 2014. “Hubojaneun Wae Busilhan Gongyakeul Naenonneunga?” *Je 6hoi Jibangseongeoeseo K-Manifesto Hwalseonghwa Bangan,* Jungangseongeogwalliwiwonhoi · Hangukjeongdanghakhoi · Hangukjeongchaekhakhoi Gongdong Juchoi, Je 6hoi Junguk Dongsi Jibangseongeoeseo Manifesto Jungangseongeo Toronhoi, 2014. 3. 11.